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od News &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4)

최근 동부아프리카의 가뭄과 식량난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나라는 소말리아이지만, 인근 케냐 역시 식량난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당장 입 하나 줄이고, 몇 푼의 돈이라도 얻기 위해 어린 딸을 파는 일이 일반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결혼이 법으로 금지된 케냐에서 이 일은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여성 인권운동 단체인 '트러스트 로'(Trust Law)가 최근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동아프리카 유목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조혼 풍습이 진행돼 왔다. 처녀성을 유지한 채 딸을 결혼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뭔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또 신랑측 역시 신부측에게 지참금으로 가족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조혼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 때문이다. 생존위기 속에서 딸을 내다파는 이유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을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조혼은 어린 소녀가 교육 받을 기회도 박탈 당한 채 부모에 의해 강제로 결혼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어린 나이에 출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출산 사고나 사망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그동안 지참금으로 주로 가족을 주고 받았지만, 가뭄으로 가족이 대거 죽어 버린 상황이어서 가족 대신 돈을 주고 받는 풍조가 늘고 있다. 대체로 평균 1만 5천 케냐 실링(170달러) 정도에 결혼이 성사된다.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 팔려 나가면서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다. 한 초등학교는 2년 전 350명에서 지금은 210명으로 줄었다.

'트러스트 로'는 매년 전 세계에서 18세 미만의 소녀 중 약 1천만 명이 결혼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초에 1명꼴로 이는 대부분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중에는 원치 않는데도 혼인해야 하거나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트러스트 로'는 밝혔다. (출처:매일선교소식)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룯기 3:9, 18)

사랑하는 주님, 가뭄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조혼 풍습을 가난 탈출의 유일한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케냐, 식량난으로 인한 조혼 풍습

매년 전 세계에서 18세 미만의 소녀 1천만명 결혼



17살의 우네스 은암베는 어린 아이일 때 약혼 하였다. 이는 그녀의 부모님이 오빠의 신부감을 고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에게는 두 자녀와 70살의 남편이 있다. (출처:뉴욕타임즈)

'케냐, 식량난에 따른 고통 호소
먹을 입 하나 줄이고
몇 푼돈 얻으려 어린 딸 파는 일 일반화'

'부모에 의해 강제 결혼하여
노동력 착취, 어린 나이의 출산으로
출산사고나 사망 등의 위험에 노출'

'1만 5천 케냐 실링(170달러)에 결혼성사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어'

탈출구로 삼아 행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장의 한 끼의 식사,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 은밀하게 아이를 매매하는 현실 앞에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바라보오니 주의 옷자락을 펴시고 이 땅을 덮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에 있는 필요 뿐 아니라 이들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해결되어 육신이 배부르게 될지라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들에게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조혼이라는 풍습과 문화에 얽매어 버림 받은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리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을 무를 자가 되시오니,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말고 일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4면 - 복음기도모임 5주년



▶ 인터뷰 5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김진기 목사

다음호는 9월 25일자로 발간됩니다.



김용의 선교사 컬럼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묻고 싶을 만큼 막막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증인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외롭게 싸우고 있을 수많은 복음의 동지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육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터널은 이미 끝나기로 결론이 나 있지만, 지나는 동안은 빛이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가고 있다.”고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다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기서에 보면 사단이 욕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욕을 자랑하시는데, 그 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욕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만한 것들, 즉, 그의 소유와 자식과 건강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 엄청난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사단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직 신뢰할 믿음의 대상이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환란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결과가 팍팍 나타날 때, 물론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이렇게 충만할 때도 믿음이지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비록 앞으로 한 발 내딛을 힘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하냐? 그냥 예전대로 살아.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고백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며 돌아섰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음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시 믿음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 역시 믿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더디지만 주님을 따라 온 걸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악의 덩어리 자체인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호 14:4)

고멜 같은 본질적 죄인인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역을 고치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바꿔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내가 멈춰있다고 해서 주님이 멈춰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배 안에서 잠이 들어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배를 운행해 가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동안,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고 수술을 받는 동안 나를 실은 하나님의 배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의 항구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풍성한 나무가 겨울에 앙상해지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수액을 찾아 더욱 땅 속 깊이 내려갑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찾아 더 깊이 내면화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생명의떡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진실한 체험이다’

아모리아 / 일곱 죄수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급진적인 이슬람 지도자들은 그 ‘이단자’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7년 동안 설득하였다. 그러나 야만적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이단자들은 결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모하메드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스도는 오래 전에 죽었지만 그는 최근까지 살아 있었다. 그야말로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듣고 나서 대답했다. “이 나라에서 어떤 문제의 적법성은 증인의 숫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모세에서 세레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의 증인은 그 자신뿐입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당황하여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이 분명하다. 우리의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강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음흉하게 웃으며 으스스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 숭배도 참 신앙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했다. “그들도 한때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승리와 권력과 부가 당신들 신앙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과 고문 가운데 두시지만 장차 승리를 안겨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AD 845년, 중동의 도시 아모리아에 살던 무슬림들은 7명의 그 이단자들을 개종시키기를 마침내 포기하고 참수하여 그 시신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의심과 질문에 대답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의심과 질문에 대답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에 그들이 언제나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는 솔직담백하게 모른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체험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실한 체험을 들려주는 것이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정규)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생애 처음으로 그린 그림, '하나님의 원형'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3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며 수단 다라살람 마을의 한 교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에 디자인 되었던 하나님의 원형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됐다. 생전 처음 복음의 비밀을 들은 아이들의 손에는 색색의 작은 크레파스들이 쥐여졌다. 그림이라고 그려본 적이 없다는 아이들은 목에 건 명찰 뒤에 자신의 원형을 그렸다. 동그란 얼굴에 고불고불한 머리, 허를 속 내민 재미있는 모습 등...이 아이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그려진 '하나님의 원형'이 그의 생애 처음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1:4,5)

글. 박연희
(사진제공 : WMM)

십자가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문화사역, 십자가(갈6:14) 1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 문화와 관계하는가?’



김관영 목사 (문화행동 아트리)

‘기독교 문화관’을 공부해보면, 소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문화에 대해, 세 가지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이 세상 문화와 철저히 분리(separation) 혹은 단절된 삶을 살아야한다는 입장.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이 세상 문화와 일치(identification) 혹은 동일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입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세상 문화를 개혁(reformation)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입장들은 그 논리의 근거를 똑같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입장을 취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 할례를 받고 아람어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유대교의 명절도 다 지킴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사셨다는 것. 예수님이 세리, 창기들과 식탁교제를 나누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등 늘 개혁적인 삶을 사셨다고 그들은 각자 주장한다.

나름 일리가 있는 세 가지 주장 뒤에 나타날 주장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바로 통합적 입장이다.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매우 균형 있고 적절하게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문화를 어떤 면에서는 분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아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지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 고백한다. 기독교 문화사역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 통합적 입장을 진리인 양, 복음인 양 떠돌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문화와 관계설정에 앞서 반드시 먼저 던져야 할 물음에 있다는 것! 세상문화에 대해 균형 있고 깔끔한 논리를 갖는다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점이다.

결코 그럴 리 없다! 완벽한 논리와 치밀한 구조를 세웠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단 하나, 거듭나야만 한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려면 아래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시작된 나의 옛 자아생명과, 그 병들고 죄된 자아가 근거하고 누려왔던 모든 문화들이 죽어야만 한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걸려 미동조차 불가능한 늦 뱀이 돼야만 한다.

그런데 그 일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나는 거듭난다. 그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이 그의 사명이 된다.

그 때가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세상 문화 속에서 무엇과 분리하고 무엇과 일치되며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과연 이 선택이 십자가를 드러낼 것인가?’, ‘복음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 앞에 혼란스러울 것은 없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쪽에서 보면 시체나 다를 바 없다.

이렇듯 세상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만이, 즉 그리스도인

만이 세상 문화와 관계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화로부터 완전히 죽어본 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맞이한 모든 혼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거듭나지도 않은 교인들에게 제자훈련 시키고, 신학교육 시키고,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줄로, 제자이고 사역자인줄 굳게 믿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그날’에 그들이 듣게 될 것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말씀뿐이다(마7:23). ‘예수 생명’이 아닌 그들이 모래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고 치밀할수록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집이 아까워서 그 기초가 모래였음이 드러나도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행한 것(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 행한 것(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이루어낸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 모두가 여지없이 폐기처분될 것이다. 심지어 그 이야기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 문화와 관계하는가?’

오직 십자가로만 관계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로만 관계한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갈6:14)

<계속>

선교통신

“아프리카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케냐 동부지역, 총 34일간 5,000km를 순회하며



“평범한 아프리카 일상의 삶이 하늘의 힘으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34일간 5천km. 한국과 호주의 아웃리치팀과 함께 동아프리카의 케냐 동부지역을 순회한 안선교사.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순회선교단 아웃리치팀과 호주의 교회팀과 각각 2천km, 3천km를 걷고 차를 타고, 삼륜차와 자전거로 누볐다.

아웃리치팀들과 함께 이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벽돌 만들기, 정자 공사 등 다양한 사역으로 현장을 경험하고 섬겼다. 스와힐리 문화 역사 강의, 비정부기구(NGO)의 종족 갈등해결 사례, 케냐 신학 교육 강의, 목회자 포럼, 이슬람 강의 등 다양한 영역이 나누어졌다. 또 회교마을 학교 지붕공사, 난민촌의 솔라 패널 설치, 비둘기 잡기, 잡초뽑기 등으로 섬겼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놀이와 낚시로 안식하기도 했다.

“순회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다”는 안선교사는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 가능한 시간이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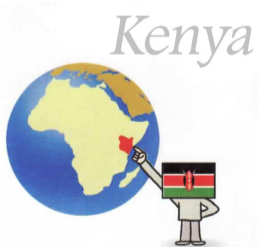
한국의 6배 정도의 면적인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출발, 남단의 몸바사를 거쳐 동부 아프리카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 말린디를 동부 최북단 라무에 이르기까지 케냐 영토를 남에서 북으로 밟으며 이 땅을 주님께 올려 드렸다. 교통수단도 다양했다. 비행기에서 버스, 택시,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톡톡’, 트럭집간, 뚝단배, 당나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이러한 여정 동안 케냐 땅에 살고 있는 회교도(무슬림)들의 친절과 소박한 소망, 노동과 공동체의 즐거움, 인생의 삶과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참 인생을 깨닫게하고 영원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면에 이어 - 케냐는 어떤 나라인가?

에이즈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나라



면적 58만2천km²(5.8배)
인구 4천만(0.8배)
도시화 22.2%
종족 108종족 반투 66.0% 닐로
틱 29.8% 쿠시 2.7%
종교 기독교 82.6% 무슬림
8.3% 전통종족종교 7.2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여러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고백하고 있다.

높은 인구 증가율이 에이즈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요즘 날마다 장례식 치르느라 바빠요.

아프리카 동부,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공화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높이가 5백 미터 이상의 고원으로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부와 서부의 비옥한 고원지대에 살고 있다.

7만 개가 넘는 개신교회 및 토착교회를 섬길 훈련받은 지도자가 부족하다. 훈련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 기획 - 복음기도모임 5주년



“복음과 기도를 결론으로 삼은 성도들을 위한 모임”

-복음기도모임 5주년을 맞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 증인들의 진솔한 믿음의 삶을 간증하는 자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참석한 모든 이들이 부르짖는 자리.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기도모임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복음과 기도를 결론으로 삼은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갖는 복음기도모임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9월 28일, 성남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6층 글로리아홀에서 월례 모임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 모임은 60여회에 이르도록 매월 패턴과 진행방식이 식상(?)할 정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갖는 시간과 집회 장소도 변경되지 않았다. 모임의 성격 또한 바뀌지 않았다.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진리가 결론'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모임의 기획의도였던 것. 모임 초기에 진행으로 섬기다 몇 년만에 올 9월부터 다시 이 모임을 섬기게 된 김용식 선교사(순회선교단)는 “복음의 삶을 나누고 또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복음 앞에 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진행돼온 이 모임은 개인의 삶에, 또 열방 땅끝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증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등 다양한 간증과 은혜를 남겼다. 매월 2명이 참여하고 있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은 개인의 믿음의 삶에 큰 이정표를 찍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 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증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 생명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십자가 승리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증인이 그동안 100여명 이상 눈물겨운 간증으로 믿음의 행보를 보여줬다.

▼2006년 9월 성남 선한목자교회 6층에서 첫 문을 연 복음기도모임



복음기도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한 강사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권영조 목사(사이판복음교회) ▲▼



▲선한목자교회 1층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하는 모습



복음기도모임에서 열린 '비지트' 공연의 한 장면 ▲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통로로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외에도 국내외 현장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선포했다.

또 일년에 두 차례 100여명에 이르는 비전트립과 땅밋기 기도원정대로 국내외에 떠나는 아웃리치 팀을 파송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아울러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장단기 선교사로 열방으로 떠나며 증인들의 기도를 받으며 떠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서도 한 몫하기도 했다. 2011년 현재 복음기도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행동 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는 지난 2009년초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 '비지트'를 공연, 참석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방문 '비지트'를 하신, 주님을 알리는 공연을 이 모임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복음기도모임은 수도권 외에도 매월초 대구에서도 경북지역 복음기도모임으로 열리고 있다. 또 해외에서도 파키스탄에서 동일한 이름은 아니지만,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꿈꾸며 매월 한 차례 그리스도인이 모여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선포하는 복음기도모임은 그 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모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미리 예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임 시작 30분전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Y.S.

[인터뷰] 김용식 선교사(복음기도모임 섬김이)

실패했거나 넘어진 이후 주님을 붙잡은 간증 통해 은혜 누리

- 매번 복음과 기도의 증인을 세우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믿음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 힘을 얻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때문에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증인들은 복음으로 잘 썼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거나 넘어졌을 때의 삶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고백하는 당사자나 듣는 청중들이나 함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 모임을 섬기면서 기억에 나는 증인들이 있

는지. "아마 두 번째 복기모 때로 기억이 되는데 부산에 사시는 한 장로님이셨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대표(CEO)였다. 그분이 복음 앞에 서신 이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고백을 해 주셨다. 당시 증인에게 할애된 15분의 고백을 위해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도 감동이었다. 또 실제로 주님을 이 기업의 대표로 여기고, 자신은 부사장으로 물러서고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면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셨던 기억이 있다."

- 끝으로 복기모를 통해 기대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바라기는 복음기도모임의 정체성에 맞게 복음과 기도라는 주님의 두 기둥에 걸 맞는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한다. 실제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외롭고 험한 길이고 그만큼 유혹과 핍박 가운데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주님만 소망이시며 복음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또다시 복음과 기도로 결론내는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 행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나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생명으로 사는
김진기 목사(동산교회)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 했던 김진기 목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진리에 갈급했던 그는 어느 날 진짜를 발견했다. 그에게 진리와 충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그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산교회에서 만났다.



- 본지에 **nehemiah52**기도에 참여한 목사님의 고백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 의해 목사가 되기로 바쳐진 이후 큰 몸부림 없이 목사가 되었어요. 자유로운 학풍에서 신학을 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목회는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곳 향남에서 8년째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전에 알던 후배들은 지금 저의 목회 모습을 보고 놀라워 해요.”

- 학창 시절이 어떠셨는지요.

“평범하고 뭐하나 뚜렷한 것 없이 성실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군대에가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됐죠. 그러나 제대해서 기숙사와 강의실, 도서관에만 있었어요. 책을 읽다보니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에 심취되어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철학적 질문도 하며 답 없이 혼란된 삶을 따라가며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도덕적 의도 흔들리면서 술, 담배, 음란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역과 삶은 정확히 분리되었어요. 사역도 잘했고, 예배 때마다 늘 은혜를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름 행사를 끝내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창녀촌을 기웃거리던 저의 삶은 여전했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합리화 속에 안목의 정욕을 즐기며 그곳을 배회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존재적 죄인인 자신에게 철저히 속아왔던 거예요.”

-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역은 어떻게 하셨나요?

“2003년에 담임전도사로 부임해 2006년 목사안수를 받았던 그때도 저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교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작 저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다른 믿음 속에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합리화 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주변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는 잘 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 설교는 할 수 없었어요. 신앙고백을 할 때면 ‘나 이거 믿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정죄했어요.”

-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군요.

“분명히 진리라 믿는 것이 나의 삶을 하나도 바꾸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답답했죠.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왔지?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격했죠. 그러나 저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하나님일 뿐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이처럼 복음으로 살고 싶었기에 ‘십자가의 도’라는

제시펜 루이스 책을 읽기도 하고, 새 신자들을 위한 교재로 공부하기도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는 저에게 복음이 실제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답답하고 목마름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복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 갈급함과 목마름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만나게 되셨나요?

“2007년 9월 복음학교라는 과정을 소개받았어요. 여름 세미나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때 스케줄에 맞추어 신청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갈급함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 참석하게 됐을 무렵, 저는 제 아내에게 ‘집에 장례가 나더라도 날 찾지마’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절박했던 것이죠.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살던 저였지만 그 무렵, 강의시간에 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복음이 내안에 실제 되었죠. 나는 죽고 내안에 예수가 산다는 사실이 내게 실제 된 이후 이제 이 말 외에는 할 수 없게 되었죠.”

- 그 이후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십자가 앞에 선 이후 똑같은 좌절을 경험했죠. 그러곤 ‘끝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모르면 상관 없는데 십자가 앞에 선 후 또다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에 죽음으로 연합한 거 사실인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나?’라는 참소 속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복음학교를 섬기며 조원이었던 한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일 주일 낮 예배 때 옛생명의 실체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생명으로 여기게된 자신의 복음을 정직하게 나누겠다고 얘기하더군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굳이 이걸 해야 하나? 목회자의 권위도 있는데...’ 라고 그동안 미뤘던 일에 정면 돌파를 하게 됐어요. 득과 실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 붙잡고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나누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 이후 목회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이 믿음이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옆치락뒤치락하며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나로서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때 불튼 게 말씀기도였어요. 기도24365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말씀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말씀 한 절이 실제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일지라도 주님은 말씀기도를 통해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이 결론 되게 하셨죠. 말씀 한절이 실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 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 교회에서 기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도24365에서 연말에 갖는 7차 완주감사예배를 통해

2008년 한 해 동안 지역교회들이 52주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기도로 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흥분케 하더군요. 이전부터 품고 있었던 교회의 연합. ‘정말 가능할까?’ 지역 청소나 장학사업 정도만 생각했는데 기도로써 연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듣자 한 주간 참여하기로 신청했어요. 현재 20여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뿐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함께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24365가 무엇인지부터 제가 이해하는데로 설명하며 한 교회의 부흥을 넘어 이 땅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편지를 썼어요. 올 수 있는 거리의 모든 교회에 연락했어요.”

- 외부에서 많이 참여하셨나요?

“정말 한 분도 안 오셨거든요. 다만 지나가던 한 자매가 길을 잃었다며 우연히 기도에 참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nehemiah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런 확신이 들었죠. ‘사단이 낙담했구나. 이제 더욱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내년은 더 몰아쳐서 해야겠다’ 제 마음에 더욱 담대함이 생겼어요.”

- 교회 벽면에 올해 표어로 이사야 62장7절 말씀에 있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붙어있더군요.

“사실 올해 nehemiah52 기도를 분기마다 할 마음도 함께 주셨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점점 성도들 중 이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고 분산된 마음이 되는 것을 보았죠. 함께 복음으로 서 있던 지체들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억지로 끌고 가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복음기도동맹에서 ‘다시 복음 앞에’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아내와 저는 먼저 매일 말씀기도를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일오후마다 함께 하고 있구요. 그러다 주님이 한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한 가정이 어떤 사건을 통해 함께 말씀기도에 자발적으로 동참케 되었고, 지난달부터는 다섯 명이 모여 매일 말씀기도를 하고 있어요.”

- 주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기도제목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인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보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 두려워 할 일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요즘 더욱 절실하게 느껴요. 지역교회가 함께 복음과 기도로 연합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Y.D

기도의 삶 - 중보기도학교 땅밧기 기도원정을 다녀와서

“복음의 꽃이 피고 있는 땅, K국을 밧으며”



땅밧기 팀장은 나였지만 나의 팀장은 주님이셨다. 주님께 팀장을 위임한 자의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그 이후 주님은 팀장으로 부족한 없는 인도함을 허락하셨다. 모든 것을 주님께 위임한 자는 내일 걱정이 없고 주님과 함께함의 복을 마음껏 누림을 경험했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팀이 이슬람 국가인 K국에 연합과 섬김의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나? 기도로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기쁨이었다. 이것은 나의 수준을 넘어 주님의 계획이었다. 시작부터 계속된 주님의 인도와 평안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셨다.

파라즈교회에서의 기도를 통해 이 곳이 전쟁하는 군대로 일어나 열심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보게 하셨다.

“너희가 나팔소리를 듣거든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느 4:20)

견고한 이슬람의 장벽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며 어마어마한 주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답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대장되신 주님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땅에 느헤미야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이 몰려올 때 감격 또 감격 했다. 주님이 우리의 수준을 넘어 일하고 계셨다. 생면부지의 성

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처럼 형제와 식구 그 자체였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땅이었다. 파라즈교회에서 기도에 자리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임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차 보였다. 이미 사탄이 진 게임인데 대적하며 결박하며 예수생명으로 사는 것, 복음과 기도로 싸우며 나가는 길은 기쁨이요 눈물이요 감사였다. 어쩌면 기독교인이 2%인 이곳에 힘없어 보이고 이슬람에 눌렸을 것 같은 이 땅에도 복음의 꽃은 피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의 불꽃이 타오른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다. 15, 16세 젊은 청소년이 기도 자리의 참석도 이어졌다. 다음세대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며 선포되는 고백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날 수 없는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할 기도의 자리임을 고백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수 없는 K국 성도의 믿음의 기도들이 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주님을 계속 신뢰하며 선포했다.

침켄트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셨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고 계셨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열려와 두려움이 없어졌다.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들과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순종이 드러질 때 임을 알게 하시고 실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계속 기도의 전쟁으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할수록 이 땅에 소망은 곧 기도임을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 일하심에 놀라고 또 놀랐다. 무르익은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불렀던 “거두리보다 거두리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보다” 계속 귓가에 들린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기에 가보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생각에 머물렀을 K국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사60:22) 이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 시읍소서!

김영희 권사(중보기도학교 섬김이)

2011년9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36주차 (9월5일-10일)

청주임마누엘감리교회 - *느헤미야 김현중 전도사
참좋은교회(대구) - 이태길 형제

37주차 (9월12일-17일)

열방의빛된교회 - 느헤미야 김형근 목사
원구교회 - 느헤미야 윤철기 장로
하묘교회 - 느헤미야 김기철 목사

38주차 (9월19일-24일)

열방선교센터 - 느헤미야 강옥주 전도사
우리사랑의교회 - 느헤미야 서정학 목사
국제선교교회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 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파라임은 말씀기도(23) - 하나님의 전쟁 양상을 이해하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무엘상 17장-

이 코너는 본문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 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삼상 16:13). 다윗은 전쟁이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 승리를 나타내신다.



사무엘상 17장

(삼상17:45-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제 다음 기도제목을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1.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용기를 얻을 수 없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이들을 일으키셔서 골리앗과 같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온 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2. 여호와와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호와와 전쟁에 대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을 말이나 실재의 삶에서 보여줄 다윗과 같은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출처: 기도24·365 제공>

원어로 읽는 말씀의 샘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인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리다(사40:31)

풀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수분이다. 그런데 비가 잘 오지 않는 광야에서 풀에게 어떻게 수분이 공급될까? 그 비밀의 키가 바로 아침 이슬이다. 그러나 해가 뜨기 시작하면 뜨거운 햇빛에 풀들의 싱싱함이 시들어간다. 이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같은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은 좋은 배경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한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앙망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 힘을 제공할까? 어떻게 힘이 생길까?

‘새 힘을 얻는다’는 구절의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힘을 바꾼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야클리푸는 바꾸어지면 소망이 있다는 뜻이다.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그런 말이다. 변화(change)되거나, 대체(substitute)되어야 한다. 리모델링(remodeling)으로는 안된다. 포장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힘을 바꾸어야 한다. 내 힘에서 주님의 힘으로, 육신의 힘에서 영의 힘으로, 세상의 더러운 힘에서 거룩한 힘으로 바꾸어 살아야 한다.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인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날아가다 떨어지고 달려가다 넘어진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듯이, 우리는 적은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김명호 목사(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 소장)

“복음앞에 서는길, 오직 주님을따르는것”

천보산민족기도원의 목회자 세미나(8.22~24) 은혜중 성료



“이 땅의 초대는 부귀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택할 길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복음기도동맹 주최, 천보산 민족기도원(담임 홍완진 목사) 주관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말씀의 새 옷을 입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김용의 선교사는 이렇게 선포했다.

위기의 때, 다시 복음이 필요한 이때, 목회자를 위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것으로 도전하며 영적 갱신의 기회를 갖도록 한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참가등록 10일 전 접수가 조기 마감됐던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 등 약 320여명이 2박 3일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용의 선교사 외에 임현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 등이 각 영역에서 다시 복음앞에 서는 방법을 제시했다.

무슬림권과 북한 선교 상황을 소개한 임현수 목사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는 죽어가는 민족을 사랑하며, 부르신 곳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시복음앞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김용의 선교사는 ‘그 복음, 그 믿음, 그 교회’라는 시리즈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했다. 다양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참된 그것, 십자가 복음과 순전히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홍완진 목사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영육간에 섬기기 위해 마련한 집회였다”며 “주님이 예비해 두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기회가 되면 복음기도동맹과 다시 한번 연합해서 집회를 계획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복음기도동맹 선언문에 서명한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자발적 섬김이 빛났다. 약 50여명의 섬김이들이 청소, 주차, 예배 등 다양한 필요 영역에 조건 없이 섬겼다. 전체 진행으로 섬긴 기도원의 정해정 간사는 “처음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복음 안에 연합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말했다.

“세계기도정보 7차 개정판, 예약 접수 시작”



기도자들의편의를 위해
4권이 1세트로 분권 출간돼

세계기도정보(저자 제이슨 맨드릭) 7차 개정판이 올 하반기 중 출간된다. 조이선교회 출판부는 지난해 영문 개정판이 나온 이후 일년 간의 번역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중 세계기도정보 한국어판을 출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도자들이 휴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4권으로 분권해 1세트로 출간된다. 또 영문판과는 달리 매일 기도달력이 있어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도24365본부는 기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계기도정보 2011개정판을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8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예약 접수한다. 출간일시와 가격은 조정 중이며 접수한 분들에 한해 추후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 032-752-4365, 010-387-24365, www.prayer24365.org

미주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모집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복음사관학교도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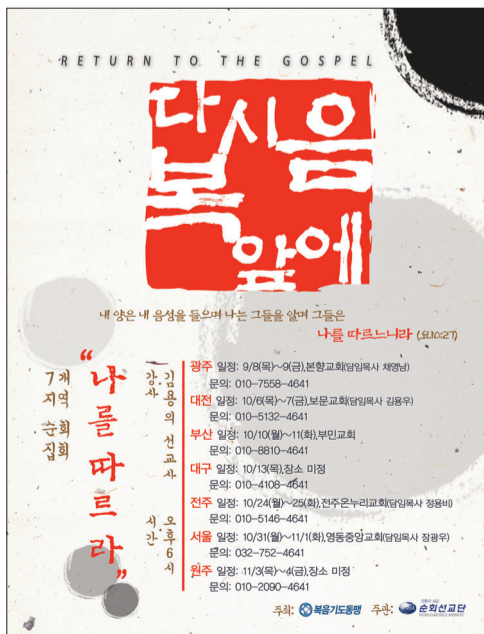
순회선교단 미주지부는 2011년 하반기 미주 1기 중보기도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도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과정은 올 10월 1일부터 2012년 1월 28일까지 12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강의와 2주간 해외 땅밋기 기도원정으로 진행된다. 훈련비는 100불의 입학금과 현금으로 운영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5일까지. 이와함께 4개월간의 합숙훈련과정인 제 1기 복음사관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문의 ☎ 818-545-0494, 818-967-7481 이메일 wmmusa@wmm119.org, 웹사이트 www.wmm119.co.kr



‘나를 따르라’

7개 지역 순회집회, 9~11월

9월8일 광주에서 시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원주에서



순회선교단(대표 김용의 선교사)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나를 따르라(요10:27)’라는 주제로 순회복음집회를 연다.

9월 8일 저녁 6시 광주 분향교회를 시작으로 대전(10/6-7, 보문교회), 부산(10/10-11, 부민교회), 대구(10/13-14, 장소미정), 전주(10/24-25, 전주은누리교회), 서울(10/31-11/1, 영동중앙교회), 원주(11/3-4, 장소미정) 등 각 지역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 12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동역 공동체 ‘복음기도동맹’에서 주관하는 ‘다시복음앞에’에 앞서 진행될 이번 집회를 통해 김태훈 선교사(순회선교단 한국본부장)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문의 : ☎ 032-752-4641, 웹사이트 http://www.wmm119.co.kr 참조

히브리 시편 본문 강좌 열린다

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

9월 5일 개강

히브리 시문학 전문연구기관인 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소장 김병호 목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개월 간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중심으로 하는 시편 강좌를 연다.

이 강좌는 9월 5일 오전 10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묵상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본문 말씀 공부에 자신을 드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는 따로 책정되지 않고 믿음재정으로 운영된다. 정원 10명. 장소는 추후 통지된다. 문의 ☎ 010-5190-1228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영화 '신들러 리스트'

“생명을 구하며 참된 생명을 깨닫는 한 인간의 이야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복음을 만나기 전, 이 말은 성경책에서나 나오는 이상적 명제라 생각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결코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그분께 한 것과 같을 만큼 모두 그분 안에서 모두 동등한 생명이라 말씀한다. 그렇기에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그 열매가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율법과 제도가 아닌 생명으로 유지되며 피져가는 나라이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생명에 관한 영화이다. 겉보기에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며 유대인을 도운 실존인물 오스카 신들러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이용했던 한 인간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참된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살아있는 기록이자 증거이다.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라이언 니슨 분)는 나치당원으로, 권력과 인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이다. 1939년 폴란드는 2주 만에 독일군에 점령되었고 신들러는 그곳에 공장을 세워 전쟁기간에 많은 돈을 벌 계획을 세운다. 그는 유대인을 이용하면 무임승차로 고용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고용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러던 중 많은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벌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 만든 반지와 함께 전범으로 몰린 신들러를 위해 모두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건넨다. 반지를 받아들인 신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연출을 맡은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나치들의 잔인한 광기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흑백화면을 사용하여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너무나 사실적이다 보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가족 모두가 함께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 신들러 만큼이나 인상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아론 괴트(랄프 파인즈 분)라는 인물이다. 극중에서 악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신들러처럼 실존인물로 악명 높은 독일군 장교이며 크라코프 수용소 소장 재임시절, 매일 아침 총으로 유대인을 저격하고 그 시체를 두 마리의 애완견에게 먹이며 일과를 시작했으며 그에게 죽은 유대인포로만 500명이 넘는 만큼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이었다. 그의 삶과 신들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그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얻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 유대인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보았다. 하지만 한 사람

은 그 기회를 통해 1,0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죽이는 삶을 택했다.

여기에 서두에서 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고 또는 죽였느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걸었던 신들러는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구절처럼 세상을 구했다.

주님은 생명 없는 그가 생명을 눈을 뜨고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셔서 세상을 구하게 하셨다. 영화를 보고 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았다. 나는 과연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 있는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또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결국 주님의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신들러가 그러했듯이. 나 하나를 위해 전부로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한 영혼과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나를 드리기를 결단해본다.

(드라마 | 독일, 미국 | 리처드 라그라브 네스 감독 | 122분 | 15세이상관람가 | 2007)

글. 박요섭 기자

후원자 명단

(2011년 8월 12일 ~ 8월 25일, 가나다 순)

△개인

김기석 김남분 김학희 박경희
송경희 유수경 유자인 천자영 무명x4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동역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숙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모임안내

집회 '다시복음앞에(Return To The Gospel)'

주제 / '다시복음앞에, 오직복음으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6:1)

일시 / 2011년 12월 13일 ~16일 (3박 4일)

장소 / 선한목자교회 지하3층 분당 (성남 북정동)

주최·주관 / 복음기도동맹

참가대상 / 모든 그리스도인

참가회비 / 헌금

연락처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400-800 인천 중구 향동7가 1-44번지 요셉의창고 내

사무실 전화 / 070-7447-0301, 070-7417-0815

휴대폰 / 010-9440-4365

웹사이트 / http://cafe.naver.com/gnpacafe

이메일 / gpall@paran.com